

## 5·18 진압군 ‘암매장 사체처리반’ 요원들 인적사항 확보

진상조사위, 특전사·보안사 운용 확인 ... 진술 거부뎐 검찰에 고발  
희생자들 광주 아닌 타 지역에서 비밀리 화장 처리했을 가능성 주목

### 보안사 존안자료도 확보 나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80년 5월 이후 특전사와 보안사가 암매장 '사체처리반'을 운용했음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또 진상조사위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80년 당시 보안사)에 당시의 존안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

자료 확보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17일 진상조사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5·18 희생자 암매장 진상 조사 과정에서 특전사와 보안사가 80년 당시 가매장했던 희생자들을 따로 처리하는 '사체처리반'을 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광주일보와 만나 보안사 사체처리반 요원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며 특전사의 경우, 과거 검찰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사체 처리반을 운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보안사 사체처리반 요원들은 가매장을 했던 당시 진압군 등을 상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사체를 다른 곳으로 이동, 처리하지 않았느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매장 했던 진압군을 찾아 "보고했던 사체 수가 맞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는 사체처리반 요원들에 대해 진상을 밝힐 것을 적극 설득하는 한편, 협조하지 않는다면 조사위에 부여된 압수수색, 동행 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진상조사위 일각에서는 사체처리반이 암매장된 희생자들을 광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비밀리에 화장

처리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발굴했던 암매장 추정지에서 희생자들의 유골이 나오지 않은 것도 이같은 요인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정부가 인정한 5·18 행방불명자가 84명에 이르고 신고된 인원은 448명에 이르다"며 "행방불명의 상당수가 보안사와 특전사의 사체처리반이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진상조사위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내에 80년 당시 존안 자료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료 확보에 나서며 국가정보원에는 존안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80년 당시 보안사와 중앙정보부의 존안자료가 확보되면 당시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80년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8단계 암매장 좌표를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아직까지 정확한 암매장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위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불리 발굴에 나섰다간 지난해처럼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앞두고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 계엄군 성폭행 등은 물론 최초 발표와 집단 발표에 대한 보다 진전된 진상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신안 교회발 코로나 집단감염 설날모임 통해 무안으로 확산

목사 집서 방역수칙 어기고 예배  
무안 친척에까지 2차 감염 '긴장'

신안군 지도읍 소재 지도침례교회(대한예수교 침례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교인 집단 감염에서 시작된 감염이 명절 모임 등을 통해 무안에 거주하는 친척에까지 2차 확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지난달 말 7일 연속 부흥회 성격의 강연회를 연 데 이어, 지난 5일 목사 집에서 10여명의 신자가 모여 '구역 예배'를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16일 밤 무안군에서 3명(전남 794-796)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안 교회발(發) 확진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16명으로 늘었다. 무안 7명, 신안 9명이다. 이날 무안지역 신규 확진자 3명은 교인이 아니며, 기존 확진자인 전남 793번의 남편과 친척들이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5일(금요일) 목사 집에서 12명이 모여 이른바 '구역 예배'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방역당국이 허용한 예배가 아닌 부흥회 성격의 성경 강연회가 지난달 말 교회에서 7일 연속 이뤄진 사실에 더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구역 예배는 교회의 공적 예배 이외의 시간에 모여 예배 등을 하며 교인 간 친교와 신앙심을 다지는 모임으로, 방역당국이 허용한 예배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전남 방역당국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은 물론 지도읍 주민 4000명 전체에 대한 검사도 벌이고 있다. 밀접 접촉자 진단검사에서는 1335명 가운데 892명이 음성인 나왔고 나머지는 분석 중이다. 방역당국은 전수 검사 범위를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남에서 17일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오후 6시 현재 누적 확진자는 796명이다. 광주에서 이날 오후 6시 기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신규 확진자가 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956명으로 늘었다.

전국에선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21명 발생, 코로나 확산세가 돌아섰다. 누적 확진자는 8만4946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457명)보다 164명 늘어나며 지난 1월 10일(657명) 이후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다. 지역발생이 590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 역시 지난달 10일(623명) 이후 최다를 기록하며 600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유행은 정점(12월 25일·1240명)을 찍은 후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특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설 연휴(2.11~14) 때는 300명대를 유지했으나 이후 400명대를 거쳐 600명대로 증가했다. 최근 1주일(2.11~17)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04명→403명→362명→326명→343명→457명→621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이홍재의 세상만사 '소띠 해 소 이야기' ▶2면
- 5·18 가두방송 주인공 전옥주씨 별세 ▶6면
- KIA 투수 이민우 새 시즌 준비 ▶18면



산사의 겨울... 빨간 연등 위 하얀 눈 소복소복 광주·전남에 폭설이 내린 17일 오전, 화순군 화순읍 만연사 경내 배롱나무에 걸린 연등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최한배 기자choi@kwangju.co.kr

##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올해 초 6학년부터 대상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오는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관련기사 7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구리시 갈매고에서 '고교학점

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에 우선 도입하고 일반계고에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2025년에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 교사 1명이 2~3개 학교 수업을 한꺼번에 담당하는 순회 교사가 배치된다. 소형 무인기 조종, 만화 창작 등 희소 분야나 교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 밖 전문기를 기간제·시간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도입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1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 2024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Not An SUV. An AMG.

Mercedes-AMG SUV Family.  
#PerformanceAdventure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Mercedes-AMG를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담양로 516(수완동)  
호주 서비스센터 (062)942-2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마곡동 609(마곡동) (메르세데스)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60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일동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정비 및 등급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1,955kg, 지동력 4륜, 복합연비 8.3km/ℓ, 도심연비 7.5km/ℓ, 고속도로연비 9.6km/ℓ), 5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12g/km  
Mercedes-AMG G 63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605kg, 지동력 4륜, 복합연비 5.7km/ℓ, 도심연비 5.4km/ℓ, 고속도로연비 6.3km/ℓ), 5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319g/km  
Mercedes-AMG GLA 45 4MATIC (배기량 2,000cc, 공차중량 1,750kg, 지동력 4륜, 복합연비 8.3km/ℓ, 도심연비 7.5km/ℓ, 고속도로연비 9.6km/ℓ), 5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12g/km  
\* 본 연비는 프론트엔드에만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